‘한국불교 중흥’ 백만원력결집 나선다

조계종 4월 17일 선포식… 3대 불사 재원 마련

佛 · 法 · 僧 주제로 사업 전개
한 구좌에 매월 3000원 기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 · 승려요양병원 건립을 3대 불사목표로 한 조계종 백만원력결집 운동이 4월 17일 본격화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을 개최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불자들의 불사원력 결집을 추진한다.

백만원력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기자회견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종단 주요사업 중 하나다. 지난 2년간 종단 안팎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불심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불자 개개인이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고 100원씩 모아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모연은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동행이 맡는다. 백만원력결집 참여는 CMS와 자동이체, ARS, 저금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CMS와 ARS 등은 한 구좌에 매월 3000원으로 기부액이 정해졌다.

백만원력결집은 각각 불 · 법 · 승 삼보의 주제에 맞춘 불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불(佛)을 주제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한다. 이는 부다가야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맡게 된다.

법(法)을 주제로 한 육 · 해 · 공 3군본부 계룡대 영외법당은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전법포교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승(僧)을 주제로 추진되는 승려요양병원은 한국불교의 최대 현안인 승려노후복지 확대와 연결된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최근 한국불교는 굉장히 혼란한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남을 탓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제는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백만원력결집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02)6273-010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승가교육 개혁, 계속돼야 합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 10일 교육불사 후원법회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불사의 원만한 지속을 위한 기금 모연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주지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장학위원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오른쪽)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승가교육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유시를 통해 교육불사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려있다”면서 “교육불사가 더욱 흥왕해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승가교육진흥위원장)도 지속적인 승가교육불사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다.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원행 스님은 “젊은 사람이 출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승가교육 전법 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종정 예하의 유시를 받들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승가교육 개혁불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연된 기금은 9억9000여만 원(금일봉 등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모든 사찰과 스님들이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많은 기금이 모연된 것을 보고 종단 구성원들이 승가교육에 갖는 절실함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노조 활동에 깊어진 조계종 시름

전 · 현직 총무원장 제소 · 고발로 논란 확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 · 현직 총무원장을 잇달아 제소 · 고발하면서 조계종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노조 활동을 ‘정치적 운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노조는 앞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3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으로, 사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원행 스님)으로 명시했다.

조계종노조는 이어 4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승 스님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조계종 내부에서는 이 같은 노조 움직임을 정치적 운동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노조 가입 종무원들이 전체 종무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 앞두고
조계종 노조에 반감 커져
중앙종회 강력 대응 시사
“종단 운영방식 전면 개편”

노조 활동 초점이 종무원 처우 개선보다 종단개혁 등의 선언적 주장에 치우쳤다는 점에서다. 실제 노조 가입자들과 같은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들은 노조 출범 당시 “조계종노조는 출범 당일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음은 물론이고, 외부기관에 의존해 문제개선을 요구하는 지금의 모습은 종단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조 탈퇴와 해산을 요청했다.

이후 반 년 가까이 잠잠하던 조계종노조가 최근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자 종단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은 4일 기자회견서 “조계종노조가 내부 사정기관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과정을 생략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단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중앙종회는 “일부 차팀장과 종무원들이 갖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에 가입, 조계종지부를 출범하고 전현직 총무원장을 제소 · 고발한 행태를 볼 때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단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각 사찰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시주금을 모아 올려 보낸 분담금으로 운영된다”면서 “불교종단의 고유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노동조합 설립이나 외부 노조 지부로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종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협의하기 위한 종무원조합이 결성돼 잘 운영되고 있다”며 “종무원들의 업무환경이나 임금체계 등이 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종회는 △총무원 집행부는 노조의 종무원법 위반행위를 일벌백계할 것 △노조 외 종무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종무원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할 것 △노조가입 종무원들은 탈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앙종회는 “종단혼란을 획책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 종헌종법 개정을 통해 종단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 〈선어록〉 교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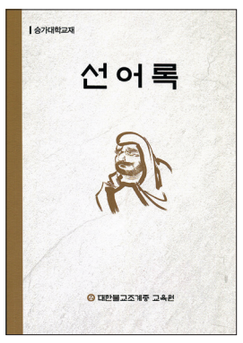
선불교 강의계획안 바탕 제작
각 선어록들 요점 발췌 교재화
법맥도 등 선문헌 자료 정리도

조계종 승가교육 교과목인 ‘선어록’에 대한 교재가 새로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교육기관 교재 〈선어록〉(〈선어록1〉, 〈선어록2〉 합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찰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교과목인 선어록은 필수교과목 ‘선어록1’과 선택교과목 ‘선어록2’로 구분돼 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 〈선어록〉은 지난 2017년 교육원서 발간한 〈선불교 강의계획안〉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이에 따라 〈선어록1〉은 15강, 〈선어록2〉는 16강으로 각각 구성됐다.

〈선어록1〉은 △제1강 구라마집 〈좌선삼매경〉 △제2강 보리달마 〈달마어록〉 △제3강 승찬 〈신심명〉 · 영가현각 〈증도가〉 △제4강 육조혜능 〈육조단경〉 △제5강 황벽희운 〈전심법요〉 · 〈완릉록〉 △제6강 하택신회 〈신회어록〉 △제7강 대주혜해 〈돈오입도요문론〉 △제8강 규봉종밀 〈선원제전집도서〉 △제9강 고봉원묘 〈선요〉 △제10강 몽산덕이 〈몽산법어〉 △제11강 회산계현 〈선문단련설〉 △제12강 무문혜개 〈무문관〉 △제13강 서산휴정 〈선가귀감〉 △제14강 자각종색 〈좌선의〉 · 〈권참선문〉 △제15강 담수 〈인천보감〉으로 이뤄졌다.



〈선어록2〉에는 △제1강 우두법융 〈절관론〉 △제2강 정각 〈능가사자기〉 △제3강 마조도일 〈마조록〉 △제4강 백장회해 〈백장록〉 △제5강 조주 〈조주록〉 △제6강 위산영우 · 앙산혜적 〈위앙록〉 △제7강 임제의현 〈임제록〉 △제8강 동산양개 · 조산본적 〈조동록〉 △제9강 운문문언 〈운문록〉 △제10강 법안문익 〈법안록〉 △제11강 원오극근 〈원오심요〉 △제12강 도원 〈전등록〉 △제13강 대혜종고 〈서장〉 △제14강 보조지눌 〈수심결〉 △제15강 태고보우 〈태고록〉 △제16강 나옹혜근 〈나옹어록〉이 수록됐다.

30여 선어록들은 기존에 출판된 저본에서 일부 발췌 수록했다. 다만,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만 전문이 게재됐다. 또한 교재 뒤편에 일종의 해제가 담긴 ‘부록’과 ‘법맥도’를 만들어 선문헌에 관련된 자료를 총정리해 학인들의 이해를 도운 점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선어록은 조계종 교학체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간 종단의 통일된 교재가 있지는 않았다”면서 “근자에 사찰승가대학 교수 스님과 학인들에게 교재 발간의 요청이 있어왔다. 이번 교재 발간으로 학인 스님들이 조계종의 종지인 직지인심 · 견성성불의 기연(機緣)이 무르익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2019년도 제2학기 필수 교과목인 ‘불교상담’과 ‘대승불전’ 교과목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상담 강의계획안〉을 제작 중에 있으며, 〈대승불전1〉, 〈대승불전2〉 교재와 강의계획안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진 스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4월 8일 ‘소명 부족’ 이유로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선학원 40여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4월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시,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채무자는 본안소송 전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학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 자격인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 총무이사가 2월 21일 소집한 이사회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법진 스님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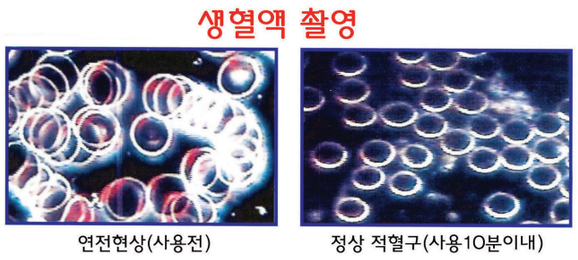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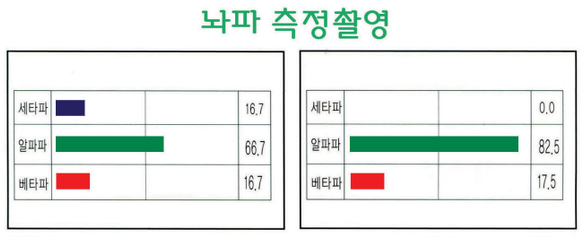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교육불사 지속 기금 마련 목적
종단 주요 스님 300여 명 참석
사부대중 9억9000여만 원 모연

…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
어…
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